

## 海を渡るブोक：シック

바다를 건너는 부엌 : 식구  
Kitchen across the Ocean: SIKGU

2023.9.8 Fri – 10.9 Mon  
13:00-19:00 (Close: Tue and Wed)  
Admission fee / Free

\* 관람객들과의 음식을 통한 작은 교류를 위하여 이유진 작가가 제주 차를 준비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 컵을 가져오신 분들에 한해 제공됩니다. (소진 시 종료)

### Talk with Exhibition Tour 큐레이터 토크

9.8. Fri 19:30

### Audience Participatory Performance 관객참여형 퍼포먼스

- 이유진 〈인생은 (초콜릿 상자 혹은) 벤또라고〉 (2023)

9.23 Sat 13:00  
9.24 Sun 13:00  
9.25 Mon 18:00  
각 회당 인원 제한

- 김도희 〈상여놀이 축원〉 (2023)

9.24 Sun 18:00  
각 회당 인원 제한 없음.

OVERGROUND(오버그라운드)에서는 차세대 큐레이터 전시 프로젝트 Curator's Exhibition을 시작한다. 이번 전시는 각각 부산과 제주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김도희(Dohee Kim)와 이유진(Yujin Lee)의 '식(食)'을 주제로 한 전시 《바다를 건너는 부엌 : 식구》다. 작가들은 한국에서 바다를 건너 후쿠오카에 머물며 음식을 통해 신작을 제작하고 발표한다. 큐레이션은 한국, 일본, 중국 출신 3인(Hyesu Cho, Naoko Tanaka, Qiuyu Jin)으로 구성된 팀인 EAG가 맡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 출신인 조혜수(Hyesu Cho)가 메인 큐레이터를 맡아 고향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 식문화의 근간이 되는 독특한 순환과 교류에 초점을 맞춘다.

하카타항에서 부산항까지는 여객선으로 3시간 정도 소요되며, 일본인들에게도 부산과 제주도는 인기 있는 관광지다. 규슈 지방과 한반도의 교류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음식'에 있어서도 서로 전파되어 유사성을 가진 음식도 존재하며, 이들은 전쟁과 이주 등의 역사를 거쳐 지금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

'음식'은 주석이 붙은 문장들과 같다. '음식'은 우리 인간의 몸에 녹아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근원적 욕구와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나아가 생활, 문화, 사회,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다. 제목의 '부엌(BUEOK)'은 '불', '가마솥'의 발음이 변화하였으며, '식구(SIKGU/食口)'는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한 지붕 아래 지내며 함께 식사하는 사이를 말한다. 출신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참여작가

김도희 (부산 출생,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 <https://www.kimdohee.com/bio>

“산다는 것은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

인간의 유기체적 특성과 원초적 물질 감각의 관계를 바탕으로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생명 감각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작업은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여 촉각적, 후각적 자극과 진동, 노동 등을 통해 신체와의 관계를 증시하면서 그를 생생한 감상 경험으로 확대해간다.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고 생동하는 '생명의 장'을 경험으로서 전달하기 위해 음양, 생사, 자아와 타자 등 상대적 개념이 갖는 잠정적 특징을 역동적으로 표현한다. 그 방

식은 설치, 사진,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하며,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제작부터 사회적 협업까지 폭넓게 이루어진다. 경험주의 미술저널 ㄷ뎀을 발간하여 편집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상여(관을 운반하는 전통 가마)'와 후쿠오카의 '야타이(포장마차)'에서 착안하여 한일 양국의 생사(生死)가 만나는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와 에너지의 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 장례문화는 축제처럼 화려하며 슬픔 이외의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이 작품은 근대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영도(影島)의 이야기를 통해 '생사'와 '음식'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24일(일)에는 1회 한정으로 〈상여놀이 축원〉(2023) 퍼포먼스가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작가는 삶에 대한 애착을 나누는 상여놀이의 형식을 빌어, 산 자와 죽은 자, 부산과 후쿠오카, 인간과 비인간의 대립과 이원론을 넘어 생동의 가치를 고양하는 요령 잡이가 된다.

**이유진 /Yujin Lee** (대구 출생,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

<https://yujinleeart.myportfolio.com/cv>

“예술이 아닌 친구를 만들자(*Make Friends, Not Art*)”

과정과 관계를 중시하는 예술을 실천하는 시각예술가이자 협업자이다. 비수도권 정체성과 공동체 형성에 대해 고민하며 '관계 미학(Relational Aesthetics)'의 언어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미국 코넬대학교 미술대학에서 BFA, 컬럼비아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시각예술 MFA를 취득한 그는 2018년 뉴욕에서 제주도로 이주하여 오래된 농가를 구입하고 주거 겸 창작 스튜디오 '미술관 옆집 Next Door to the Museum'을 마련했다. 밭과 닭과 개가 있는 소박한 시골집을 배경으로, 국내외 예술가들이 삶과 예술의 불가분적 관계와 생태적 사고의 맥락 속에서 창작할 수 있는 독특한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함께 그림을 그리는 〈그림 대화 (Painting Conversation)〉 시리즈를 중심으로 작품이 공개된다. 이번 그림 대화는 '밥도둑'을 주제로, 제주에 살며 알고 지낸 이주민 친구들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새롭게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진행되었다. 〈그림 대화: 밥도둑 이야기〉(2023)는 테이블 매트로서, 10미터에 달하는 식탁보 작품, 제주와 후쿠오카의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이용한 사운드 설치 작품과 참여자들이 공유해준 '부엌'에 관한 물건과 레시피들과 함께 전시 된다. 이 작품들은 9월 23일(토), 24일(일), 25일(월)에 진행되는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인생은 (초콜릿 상자 혹은) 벵또라고〉의 무대이자 '식구 되기'의 매개가 될 예정이다.

## 메인 큐레이터

**조혜수 (Hyesu Cho)** [chohyesu.com](http://chohyesu.com)

한국 부산 출신. 도쿄예술대학교 대학원 국제예술창조연구과 석사과정. 2020년 부산비엔날레 코디네이터, 2022년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를 지냈다. 주요 전시 기획으로 《이주임박》(안산 올림픽타운),

《Virtual Bodies: Absence/Presence in Media》(도쿄예술대학 친레츠칸 갤러리) 등이 있다. 사회적 맥락에서 미술의 경계를 탐구하고, 실천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큐레이션에 대해 고민한다. 한국과 일본을 거점으로 활동.

큐레이션 : EAG (조혜수, Naoko Tanaka, Qiuyu Jin)

주최 : OVERGROUND,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주관 : 조혜수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문의】

EAG [eag.iamhere@gmail.com](mailto:eag.iamhere@gmail.com)

OVERGROUND [info@overground.asia](mailto:info@overground.asia)